

■ 2025년 청년인문실험 연속지원 심의총평

- 회의일시 : 2025년 12월 27일(토) 15:00~16:00
- 회의장소 : 온라인Zoom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강승진, 김솔지, 안태호, 우지연, 최지만

2025년 청년인문실험 사업은 일상에서 사회적 이슈에 이르는 각종 문제들을 마주하며 청년의 시각과 상상력으로 탐구하고 해법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연속지원을 평가하는 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 청년인문실험에 참여한 98개 팀의 사업 결과에 대해 평가한 결과 18개 팀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하여 2년 연속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의를 진행하며 청년들의 도전이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반가웠습니다. 소액의 지원에도 각자의 문제의식을 발현시켜 사회와 연결하고, 실험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시선의 건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시도들이 다양해지는 만큼 사진과 영상, 팟캐스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사회적으로 강제되는 압박감과 규율에서 벗어나려는 활동이 보이는 것도 희망적인 지점입니다. 충분한 밀도를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최초의 질문이 조금씩 진화해 가며 자기 서사를 갖춰나가는 변화의 양상을 목격하는 것은 심의위원으로서 큰 기쁨입니다.

인문실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실험의 결과보다도 과정을 통해 어떤 성찰을 했고 무엇을 남기려 노력했는지, 구성원들이 결과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주변을 살피는 시선, 실험을 통해 변화하는 인식과 활동 지향을 확인하고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아쉬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부 팀들은 소수자 이슈를 다루며 대상화에 대한 위험이 엿보이기도 했고, 기존 활동의 연장선상이나 예술창작, 학술연구의 일부로 사업을 사고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팀도 있었습니다. 공공지원사업인 만큼 활동의 방향에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지나치게 착하고 선한 활동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모든 활동이 그럴 순 없겠지만, ‘실험’이라는 취지에 걸맞은 도발적인 주제나 개인적인 영역을 비롯해 약간은 엉뚱해 보이는 시도들이 더 많아도 좋겠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판단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과감한 도전이 좀 더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대개의 정책사업이 그러하듯 수도권에 집중된 참여자들을 어떻게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역마다 처한 상황과 조건이 다른 만큼 개별 지역의 청년들이 마주하는 고민의 형태도 다양할 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다양한 결의 참여가 이어지며 청년들의 도전과 모색이 공동체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심의위원 일동